

# 참당귀 직파재배기술 확립

40~50cm이랑 15~20cm간격, 10a당 1만포기 식재

참당귀 직파재배기술이 확립됐다. 능촌진흥청 작물시험장은 해발 400m 이하의 중·남부지역에 알맞은 당귀재배법으로 꽃대발생이 적고 재배기간도 짧아 생산비를 줄일수 있는 직파재배기술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작물시험장에 따르면 직파재배는 고랭지의 경우 기온이 낮아 생육이 부진하고 수량이 떨어지므로 따뜻한 중남부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알맞다.

◇파종=참당귀는 발아기간이 길고 초기 생육이 부진하므로 3월 하순~4월 상순에 파종해 흑색비닐을 덮어주면 토양수분이 유지되고 썩트는 이율이 높아 수량을 높일 수 있다.

비닐피복을 하지 않을 경우 인력파종기를 이용하면 씨앗을 고르게 뿌릴수 있어 썩트는 비율이 높고 파종노력도 줄일 수 있다. 파종방법은 한구멍당 씨앗을



5~10알씩 넣는 방법으로 10a(300평)당 씨앗 0.5~1kg을 뿐린다음 흙을 0.5~0.7cm 정도 덮는다.

◇심는거리=직파재배는 생육이 늦고 한포기당 무게가 적으므로 10a당 포기수가 유효이식재배보다 많아야 수량을 높일 수 있다.

심는 거리는 60~70cm 너비로 이랑을 내고 줄사이를 30~40cm, 포기 사이를 15~20cm 간격으로 두줄로 파종한다.

또는 40~50cm의 작은 이랑에 포기사이를 15~20cm 간격으로 한줄로 파

종하는데 10a당 1만~1만 2,000 포기가 알맞다.

◇포장관리=참당귀는 씨앗 파종후 발아기간이 20~30일 정도로 길어 피복을 하거나 물을 충분하게 주어 수분유지를 해줘야 한다.

싹이 올라와 본잎이 3~4장 정도가 되면 한구멍당 한포기만 남기고 2~3회 속아주기를 해주는데 초기생육이 느리므로 풀매기와 철저히 해준다. 또 발아후 습해에도 약하므로 물빼기에 유의한다.

◇수확=파종한 그해 가을에 1년생을 수확한다. 잎이 누렇게 변하면 뿌리가 상하지 않게 캐낸 다음 흙을 떨어내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다.

파종후 2년차에는 전체포기에 꽃대가 올라와 약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씨앗 채종만 가능하다.

〈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0331-290-6719〉

## 재배기술 상담

### 토천궁 재배방법과 종근 구입처는?

토천궁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종근 구입처 및 많이 재배되는 지역과 재배법을 알려 주십시오.

토천궁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은 강원도 평창, 정선, 홍천, 인제, 영월, 충북제천, 단양, 경북봉화, 울진 등입니다. 종근은 재배지역 농가나 종묘상 등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토천궁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므로 해발 300m 이상의 산간 고랭지나 여름철 최고 기온이 섭씨 28도 이하인 서늘한 지역이 재배적지입니다.

토양은 부식질이 많은 사양토가 좋으며, 물빠짐이 잘되고 토성이 깊은 곳이 좋습니다. 번식은 근경이나 노두로 합니다. 노두무기는 4~9g, 종근은 15~20g이 알맞습니다. 심는 시기는 10월 하순이

나 11월 상순이 좋습니다. 가을에 심지 못했을 경우는 이른봄 3월 하순~4월 상순에 심어도 됩니다. 1년생을 수확할 경우에는 줄사이 50cm, 포기사이 10~15cm로 10a(300평)당 1만 5,000~2만주를 심고, 2년생을 수확할 경우에는 줄사이 50cm, 포기사이 20cm로 10a당 1만주 정도를 심습니다.

깊이는 겨울동안의 동해 및 가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5~6cm 정도로 심습니다. 심은 후에는 깊이나 풀 등을 덮어주면 좋습니다. 가을에 심은 것은 3월 하순~4월 상순에, 봄에 심은 것은 15~20일 후에 싹이 틔릅니다. 이른봄에는 뿌리가 노출된 것은 가볍게 밟아주고 흙을 덮어줍니다.

유홍섭(작물시험장 특용작물과 0331-290-6719)

## 고품질 마 생산위해 참흙토양 선정 중요

상품성이 좋은 마를 생산하기 위한 재배기술이 구명됐다. 경북도농업기술원 북부시험장은 마 재배 때 토양 물리성이 좋은 모래침흙이나 참흙토양을 선정, 깊이갈이하면 상품성이 좋은 마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북부시험장에 따르면 마 재배 때 토양의 물리성이 나쁘면 덩이줄기의 신장과 비대가 장애를 받아 가지가 발생하고 모양이 기형이 돼 상품성이 멀어지며 가공용으로 이용할 때 다루기가 쉽지 않다.

흙성질에 따른 덩이줄기의 특성과 수량을 살펴보면 토양입자가 굵은 모래땅에서는 덩이줄기의 길이가 짧아지고 가지의 발생이 많아 모양이 매우 나쁘며 수량성도 다른 토양에 비해 낮았다.

모래침흙과 참흙토양의 경우에는 모래땅에 비해 덩이줄기의 가지발생이 크게 줄고 모양이 우수했다. 또 생체수량도 짧은 마는 21~26%, 긴 마는 6% 증수 됐는데 특히 상품성이 좋은 상마비율이 높아 수량이 크게 늘었다.

마는 뿌리가 깊게 뻗는 심근성 작물이기 때문에 깊이갈이를 하지 않으면 덩이줄기에 가지가 발생하는 등 기형덩이줄기가 많이 생기고 수량성도 낮다. 따라서 마 재배 때에는 깊이갈이를 해야 하는데 짧은 마는 45cm, 긴 마는 60cm정도 깊이로 갈아주는 것이 알맞다.

이를 위해 트렌처로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트렌처의 체인부가 회전하면서 원하는 깊이까지의 토양을 폭 20cm정도로 곱게 부수어 마 덩이줄기가 자라

는 부분의 토양을 부드럽게 해준다. 덩이줄기의 크기와 모양 및 수량성을 고려할 때 짧은 마는 60cm 이상, 긴 마는 80cm 이상으로 깊이 갈아주는 것이 좋다.

한편 마를 하우스에서 촉성재배하면 9월 하순에 수확할 수 있어 단경기 출하에 의한 농가소득증대 효과가 크다. 하우스에서 무가온으로 촉성재배할 경우 노지재배보다 한달 먼저 아주 심을 수 있으며 출아와 초기생육이 촉진돼 10a(300평)당 덩이줄기 생체중이 관행재배의 2.557kg보다 25.6% 많은 3.213kg, 상품률은 13%가 높은 58%로 향상된다.

〈북부시험장 0571-859-5123〉

## 일천궁 절편 두께 3~4mm 상품성 우수

한약재 일천궁의 뿌리약재 건조시 적정 절편두께 및 건조온도가 구명됐다.

경북도농업기술원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은 일천궁 뿌리약재 건조시 건조약재의 절편 두께가 3~4mm일 때 상품성 및 경제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밝혔다.

현재 일천궁은 수확후 세척·침수·절단 건조등의 과정을 거쳐 판매되고 있는데 절단시 크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봉화고냉지약초시험장 일천궁 두께를 1mm이하에서 5mm이상까지 6단계로 나눠

건조실험을 한 결과 두께가 3~4mm일 때 상품성 및 경제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조온도는 건조기에서 50°C로 6시간동안 말리거나 햇볕에 74시간 건조시키는 것이 상품성이 가장 높고 경제성도 우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 청양, 특산품시장 개설

청양 구기자, 맥문동, 고추등 청양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을 한데 모아 거래하는 청양 특산품시장이 내년 안에 개설될 전망이다. 청양군의 내년도 업무구상 자료에 따르면 군은 현 청양시장 인근에 600평의 부지확보와 함께 장터를 세울 계획으로 예산확보 문제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군은 지역 농특산물인 고추, 구기자 등의 일정한 거래장소가 없어 장날보다 국도 36호선 인근 도로에 시장이 형성, 교통혼잡이 초래됨에 따라 교통혼잡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지역 농특산물의 고유시장 확보 차원에서 특산물시장을 개설한다는 것이다.

특산물시장이 개설되면 고추, 구기자뿐만 아니라 맥문동, 표고등 지역농특산물의 활발한 거래장소로 자리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선학초 인공재배법 개발 경남도 농업기술원 함양약초시험장

다년생 약초인 선학초의 인공재배법이 개발됐다.

경남도농업기술원 함양약초시험장은 지혈·지사효과가 뛰어난 선학초의 씨앗을 채집, 저온처리한 뒤 씩을 틔워 인공재배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채집한 씨앗을 파종 20~40일 전에 축축한 모래와 섞어 4°C에서 30일동안 저온처리 했다가 씩을 틔운 뒤 하우스나

노지에 파종한다. 그리고 본잎이 2~3장 나왔을 때 포장에 20×30cm 간격으로 아주 심어 키우면 된다. 이때 생장촉진을 위

해 아주 심은 첫해에는 우분이나 돈분을 10a(3백평)당 2,000kg을 투입하고 이듬해부터는 투입량을 10a당 3,000kg으로 늘려 준다.

함양약초시험장은 이같이 저온처리해 그동안 40%에 불과한 발아율을 86%까지 높이고 유류농지에 아주 심어 재배한 결과 10a당 660kg을 수확했다.

〈함양약초시험장 0597-963-8785〉